

전형적인 루푸스신염 IV형과 상피하침착을 동반한 루푸스신염 IV형에서 Cyclophosphamide 충격요법에 대한 반응 비교연구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, 병리과¹

여호명, 허우성, 강우현, 김범, 김윤구, 김대중, 오하영, 차훈석, 고은미, 권기영¹

목적: 루푸스신염 IV형의 전형적인 병리 소견은 사구체간질과 내피하침착이나 일부에서는 상피하침착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다. 그러나 상피하침착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루푸스신염 IV형에서는 cyclophosphamide 충격요법이 표준치료로 사용되고 있다. 이에 연구자들은 상피하침착이 동반된 경우를 IV+V형으로 정의하고, 루푸스신염 IV형과 IV+V형 간에 cyclophosphamide 충격요법에 대한 반응을 비교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.

방법: 1994년부터 2002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루푸스신염 IV형(n=12)과 IV+V형(n=14) 환자를 대상으로 스테로이드와 함께 총 12회의 cyclophosphamide 충격요법(1개월 간격으로 6회, 3개월 간격으로 6회)을 시행한 후 두 군의 완전관해율을 비교하였다. 루푸스신염 IV+V형의 병리학적 정의는 IV형 중 전체 기저막의 30% 이상에서 상피하침착이 관찰되는 경우로 하였고, 완전관해의 정의는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일일요단백량이 1g을 넘지 않은 경우로 하였다.

결과: 치료 종료 후 완전관해율은 루푸스신염 IV형과 IV+V형에서 각각 91.7%, 50.0%이었다($p < 0.05$). 두 군 간에 연령(34.6 ± 11.2 vs 33.9 ± 7.9 세), 성별(M:F=1:11 vs 0:14), 치료 전 요단백량(4394.1 ± 3532.4 vs 3622.5 ± 1441.2 mg/day), C3(35.1 ± 17.8 vs 46.9 ± 16.2 mg/dL), C4(6.5 ± 4.5 vs 9.2 ± 4.5 mg/dL), anti-ds-DNA(546.1 ± 587.7 vs 356.9 ± 505.6 IU/mL), 혈청크레아티닌(1.1 ± 0.5 vs 1.0 ± 0.5 mg/dL)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(측정값: 평균±표준편차, IV형 vs IV+V형).

결론: 루푸스신염 IV형과 IV+V형에서 cyclophosphamide 충격요법 후 완전관해율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. 그러므로 향후 신생존을 비교연구를 통하여 루푸스신염 IV형과 IV+V형의 임상양상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.